

양과 같은 믿음

마 25: 31-36

옛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그러면서도 귀중한 재산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생활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양을 넓은 목장에서 기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 우리 안에서 키우며 먹이를 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들은 단순한 동물이라서 먹이를 든 목자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떨 때에는 약한 양은 몰리는 양떼에게 밟혀서 치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우리 안에 염소를 몇 마리를 함께 넣어둡니다.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인 염소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양들을 심술쟁이처럼 이리저리 흩어 놓게 해 주어서 양들이 치어 죽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몸은 따뜻한 털로 온통 감싸여 있어서 추위에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 시원한 공기를 더 좋아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실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성질이 워낙 이기적이라서 아무리 추위도 가까이 모여서 정답게 지내지를 않는다는 것예요. 나는 여기/너는 저기 서로서로 떨어져서 별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모이기만 하면 옹기종기 모여서 사이좋게 붙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양은 착한 사람을 상징하고, 염소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멸망 받을 사람은 왼편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왼손이나 왼편을 부정적인/좋지 않은 쪽으로 봅니다. 전도서 10:2 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 25:41 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오른손은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7 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0:1 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예비된 나라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은 죄인의 자리, 멸망 받을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35-36 에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하신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면, 마실 물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로 집을 떠나 힘든 여행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울철에 다 떨어진 여름옷을 입고 계시다면, 우리는 따뜻한 털옷으로 입혀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들어 누워 계시다면, 우리는 찾아뵙고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혀 고통 받고 계시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만나 뵙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돌봐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도무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40 절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높고 귀한 자리에서만 찾습니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 때에서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남을 도와줄 때 되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대신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행동일 뿐입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여러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새벽기도회로 매일 새벽에 모이지도 않고, 수요일 예배/금요일 철야기도회로 모이지도 않고, 통성 기도로 크게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밤마다 아이들을 재울 때 기도해 주고, 직장에서 바른 삶을 살며, 학교에서/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봉사합니다. 고아, 지체부자유자를 입양하여 돌보며, 선교와 자선을 위해 기꺼이 재산을 기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진짜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들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Dr. Henri Nouwen)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인 데이 브레이크 복지원 (Community of Day Break) 직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하여 신학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한명이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20 여권은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가서 정박아들의 대변과 소변을 치우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했습니다. 고생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지만 만족했습니다. 모두들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신동이란 말을 들었고 하버드 교수에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권은 못 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 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약아 '아담'이라는 한 소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또 한사람의 섬김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것은 억만장자인 세계적인 실업가 카네기(Andrew Carnegie)의 묘비명입니다. 집이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묘비명처럼 남을 잘 섬김으로 성공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일주일 일하고 겨우 \$2.40을 받던 공장 직공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에 억만장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고생하며 공부하였기 때문에 가난하여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그늘진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문화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는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그 돈을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잘 썼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카네기를 찾아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여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목이 그의 경영철학이자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들은 이 땅에서는 낮 동안에 같은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서로 다른 우리 속에 넣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엔 선한 사람 악한 사람/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두 똑같이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잘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시간엔 구원 받을 자와 멸망 받을 자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기준을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